

‘택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택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깨달았느냐?”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정’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성서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비유컨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할 때는 전심(全心)을 해서 구해서 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값진 진주를 목적하고 다니는 사람이 진주를 만났을 때는 그 동안 장사해서 벌은 것, 모든 있는 것을 몽땅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나.

이와 같이 천국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나왔지만 의인을 찾느라고 하나님은 턱을 고이시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주를 찾는다고 하듯이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을 내서라도 자기 필요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에는 또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생활사에 보면 그 사람에게에는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은(성경은), 절대 누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세계를 절대 필요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기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해도 달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필요하게 못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못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큰 모순입니다.

귀하고 필요하게 만들어놨는데, 필요하게 못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달되어서 인간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흙을 가져다가 떡처럼 찌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발달되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사람이 아주 무식하다는 옛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물이 도자기 만든 일은 이제껏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인데도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지혜롭다는 동물은 아직까지 도자기를 하나도 못 만들어 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신의 성품이라 어디까지나 늘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상상도 못하는 단계까지 가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하는데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꾸중을 하면 그때는 내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돌 속의 철을 끄집어내서 녹여서 철은 철대로 돌은 돌대로 내서 이런 건물을 짓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들이 아니겠습니까.

에덴동산에서 금이 귀한 것을 알았겠습니까, 철이 귀한 줄을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지능이 완전히 깨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귀하게 만들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되고, 인간이 타락된 이상, 인간이 병들어서 쓰러진 이상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듯이 절대로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병든 자에게 의사가 다 필요하듯이. 그 병은 스스로 나올 병이 아닙니다.

저 대둔산의 한 골짜기에, 사람도 안 다니는 데에 어린 꼬마가 겨울철에 있다면 결국을 열어 죽을 것입니다. 두 살 박이, 세 살 박이인데.

이와 같이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듯이, 온 인류는 다 무지의 세계로, 사망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수 있게 만나면 구원받고, 못 만나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진주가 값이 나갈지라도 구하고 말 듯이 하나님도 자기가 택한 자들을 이와 같이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택한 자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시대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그 말씀과 연결시키면 다 값있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은 사람과 같이 붙여놓으면 죽은 사람도 결국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과 붙여놓으면 산 사람도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미친 사람을 따라가면 미치게 되고, 미친 사람도 성한 사람을 따라가면 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된 사람을 절대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 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병원에 가면 꼭꼭 매놓고 절대로 꿈쩍을 못하게 합니다. 성한 사람을 따라가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깐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오래가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가 굳듯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한 취급을 서서히 하면서 밖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오래 있다가 온 사람은 능동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절대적인 하늘 주관권, 생명권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말씀을 세상에 접 붙여놓으면 그 말씀으로 같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 말씀의 조명을 받게 되면 같이 빛이 납니다. 대둔산도 그냥 봐서는 시커먼데 아침 태양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태양에 의해서 붉게 보이고, 두 번째로 아침을 벗어나면, 붉은 빛은 벗어나면 대둔산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 받기에 달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어떤 사람과 같이 구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있는 생활을, 누구를 따라가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것입니다.

소처럼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 다니는 소는 아주 어린 소입니다. 끌려가는 소는 나쁘게 말하면 도살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개도 늘 끌고 다니던 개는 누가 와서 끌고 가도 그냥 따라잡니다. 그러나 주인이 통솔하면서 자유롭게 따라 다니는 개는 누가 끌고 가려고 하면 뚫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늘 끌려 다니지 말고, 늘 하늘의 진리 안에서 책임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사람과 진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렀으니 자기도 하나의 시대의 중심자 입장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선수범하고 본인이 뛰고 달리고, 책임도 짊어지고 모두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듯 여러분을 모두 값있게 산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수십 년 동안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서 내 보내기에 그 값이란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천국 가는 데 100번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한 번 듣는데 100만원씩 내야하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 100만원씩이라도 내고 안 듣겠습니까? 맨날 들어야지요. 1000만원 내라고 해도,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우선 듣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로 자꾸 형성되어 가야 됩니다. 진리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말썽거리, 골치 아픈 사람, 결국 꼴도 보기 싫고, 내쫓아야될 사람이 되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에 가야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볼 때 안쓰럽기 하지만 하늘이 들어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에 끄집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것은 예정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택했다.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며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물질을 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송사리 같은 것, 피라미 같은 것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찌꺼분한 것도 집어던져 버리고.

좋은 것을 고른다는 것은 뭘고하니,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있는 어떤 잡다한, 그물에 걸린 엉겅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기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은 집어던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그물질해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미 한번 투망으로 던졌는데, 그물은 많은 생명들을 중심해서 던진 것이지, 오물을 중심해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던졌을 때 열 명 중에 두 명, 혹은 한 명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집어던진 것을 볼 때 섬짓할 것입니다.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또 언제 그물질을 하겠습니까? 또 그물질해봤자 또 그 고기인데.

불가사리 같은 것은, 고기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다 집어던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 그물질에서, 복음의 그물질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횡적과 종적인 말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인 말씀을 던져서 그물질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물에 걸렸고, 일단은 골라내서 주인이 끄집어냈습니다.

이미 개인에게도 얘기했지만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분명하다. 내가 그에 대해 증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택한 자들이 되어서 그물에 걸렸고, 주인이 앉아서 초근히 골라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고 돌아다니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심판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시중을 들뿐이지 심판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천사가 와서 돌아다니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사람들을 인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노니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공부한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라.”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 심판받아라. 너 죄인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신사적인 심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서 안 따라오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깨달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검부적을 갖다가 풀무 불에 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풀무 불을 압니까? 죄를 달구기 위해서 준비한 불이 풀무 불입니다. 거기에 바람 넣는 것을 풀무질한다고 합니다. 풀무질을 하면 죄가 녹습니다. 그 단단한 죄가 익어서 물렁물렁해 집니다. 이와 같이 풀무 불에 넣어진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풀무 불에 넣는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잔인한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택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 불에 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 성경이 제대로 안 풀리고 하나님은 가슴이 답답해서 대화가 안 통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여러분들은 섭리 그릇에, 섭리역사, 섭리 그릇, 선생님 주관권 안에! 이런 섭리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느니라.

참 못돼서 버렸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못돼서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못됐더라는 것입니다. 왜? 지구촌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이단시하고, 적그리스도화 하는 못된 것들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골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늘도 기대를 할 것이고, 바라고 있습니다. 골라올 때 그냥 쓱삭한 것도 아니고 많은 값을 주고 골라왔습니다. 감격하고 감사도 하지만, 그 값에 대한 그런 대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새벽에 나에게 스쳐온 말씀입니다. 어제는 혼인잔치 집에 택함 받고 불려가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택한 것에 대한 말씀이 대치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이미 택한 것이다. 안 따라오면 벌써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늘이 이런 복음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을 모으리라. 말씀 갖고서 모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택했나, 안 택했나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해보면 저 사람이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1급이다. 저 사람은 2급쯤 된다. 저 사람은 3급이다.’ 이것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가는 사람이 1급입니다. 변함없이! 그는 1급에 들어갑니다. 나이가 먹었든지 젊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늘 신앙급수가 금 같은 신앙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늘이 택한 것에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택함 받고 온 것은 사실이구나.’ 깨닫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할 일이 심히 크고, 감격감사하며 고마움을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택함 받았다고 하고,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을 때 어떻게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갖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섭리사,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낸 자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서 섭리 가운데 오게 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도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고, 천주교도 모두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로 섭리의 마지막 순으로 골라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에서 우리가 새로운 순에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골라낸 자들입니다. 시장에 가도 고르라고 했습니다. 고르지 않고 그냥 마구 집어온 것보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오고서 돈을 낼 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른 가운데 들어왔으니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무 불같은 그 무서운 세계를 벗어나도록 우리들도 뛰고 달림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인자와 사랑과 공의를 주시옵소서.

한번 나는 8시간 동안이나 적진 속에서 후퇴하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만 도망쳐도 되느냐고 하였더니 소대장이 하는 말이 방위각을 보니 아직도 적의 소굴 속에 있으니 더 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적의 율타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이나 뛰어 나오니 그때서야 적의 율타리는 벗어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해는 졌습니다. 한 봉우리를 잡고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의 사정거리 안에 자리 잡고 앉아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적이 쏘는 포탄의 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자는 적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뛰고, 하늘 앞에 더 깊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보은 저수지가 터졌을 때 규석이는 차로 물이 들어왔지만 차를 사정없이 밟아서 올라가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그와 같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탬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물길이 언제 솟을지 모르니 높은 산에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온전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잘 가르쳤으니 잘 배우고 잘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연고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이 시대에 그러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도 완전한 세계에 서게 하시고, 그들도 완전한 세계에 서게 하라 했습니다.

평강과 의, 공의, 진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주인이 되고, 말씀 속에 와서 사는 자는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중간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궁핍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이끌어 갈 것이 없을까 염려하여 기도합니다. 행여 택한 자를 끌어갈까. 모두 책임을 다하고 뛰고 달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흑암과 사탄을 멸하며, 하루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떠납니다. 오늘도 사고와 해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약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궁핍과 자비를 베푸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건강케 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서부, 동부, 그리고 모든 동방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길이 살피사 생명들이 번창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택한 자들이 수시로 부지런히 돌아오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고, 사업하며 뛰고 달리며 경제를 보는 모든 자들도 축복해 주셔서 잘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해됨과 상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해반음이 두렵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복음에 들어올 자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잡아 주셔서 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빌고 원했으니, 아버지께서 이들 위에 축복과 사랑이 넘치도록 더욱 총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